

포퓰리즘 정치와 사회운동의 도전*

홍성태 _ 대구대학교 박사후연구원

논문요약

이 글은 포퓰리즘 정치와 사회운동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인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집합적 도전의 전략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 전환의 기회 구조에서 촉진된 동원 양식의 변화가 포퓰리즘과 사회운동의 구조적 접맥을 형성하는 데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이어서 포퓰리즘 정치와 사회운동이 상호작용하는 집합과 탈구의 원리에서 '동원된 민주주의' 개념을 정식화하면서 민주주의가 양극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될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결론을 대신하여 인민주권운동의 전략을 제시한다.

■ **주요어:** 포퓰리즘, 사회운동, 동원된 민주주의, 인민주권운동

* 이 논문에 유익한 비판과 세심한 조언을 보내주신 익명의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린다.

1. 포퓰리즘의 명암

최근 정치권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용어가 있다. 경쟁하는 정치 세력이 선심성 공약으로 ‘무차별 복지’를 남발한다고 비난할 때, 그러나 자신은 ‘국민을 위한’ 민생의 정치를 할 뿐이라고 강변할 때, 대의민주주의가 기득권을 가진 부패한 엘리트에 의해 장악돼 ‘진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이 절실하다고 주장할 때, 대중을 현혹하는 화려한 언변으로 기성 정치를 위협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출현할 때, 바로 ‘포퓰리즘’을 들추어 말한다.

확실히 포퓰리즘은 논쟁거리가 되는 개념이다. 포퓰리즘의 개념을 온전히 정의하기에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논쟁의 지점들이 남아 있다 (Laclau 1977; Taggart 2002; Canovan 2005; Jansen 2011; Gidron and Bonikowski 2013; Müller 2017; Schmitter 2019). 그래서 많은 논자들이 포퓰리즘의 정치적 이미지 만들기에 몰입하면서 관점의 차별화 경쟁을 시도했는지 모른다. 특히 민주주의와의 관계를 따지는 지점에서 포퓰리즘의 정치적 이미지는 논쟁의 소재로 더욱 강조된다.

기존의 논의들은 포퓰리즘의 성격을 ‘민주주의 그 자체에 드리워진 그림자’(Canovan 1999, 3), ‘민주주의의 불안한 병리’(Mény and Surel 2002, 5), ‘민주주의의 거울’(Panizza 2005, 30), ‘민주주의의 유령’(Arditi 2007, 50-51) 등과 같은 은유로 풀어냈다. 국내에서도 ‘민주주의로 포장한 대중 영합적 정치노선’의 이미지가 포퓰리즘에 대한 지배적인 담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서병훈 2008, 21). 논자들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조건

과 전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해석의 차이는 있으나, 여기서 포퓰리즘은 분명히 민주주의에 유해한 요소를 내장한다.

그렇다고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에 착근된 ‘인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이 포퓰리즘의 언어로 번역될 때, 그 본질적인 의미가 가장 선명하게 이해된다. 모든 포퓰리즘적 활동들은 “민주주의가 오직 인민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다(Mény and Surel 2002, 9). 그러나 인민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은 언제나 다수와 소수, 갈등과 통합의 딜레마를 전제한다. 이런 점에서 포퓰리즘은 인민주권의 정치적 이중성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포퓰리즘은 소수자의 권리를 교묘히 회피하기 위해 국민투표와 같은 다수결의 개념과 실천을 동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엘리트에 의해 대표된다고 느끼지 못하는 주변화되고 배제된 집단들의 목소리를 동원해 사회 통합의 포용성을 증진할 수도 있다. 또한 안정적인 정치적 동맹의 형성을 가로막는 새로운 정치 균열을 촉진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회의 배제된 부문이 선호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치체계의 반응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Rovira Kaltwasser 2012; Mudde and Rovira Kaltwasser 2017, 83-84).

따라서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에 유해하다는 편견을 재고하고 나면, 엘리트에 의해 박탈당한 인민의 목소리를 동원하고 증폭시켜 ‘포스트 민주주의’의 변곡점을 형성할 여지가 보이게 된다(Crouch 2019). 또한 인민과 과두정치 사이의 정치적 전선을 구성하는 담론전략으로서, 이른바 ‘좌파 포

폴리즘'이라는 기표에 민주주의를 급진화하기 위한 정치적 기획의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Mouffe 2018). 여기서 핵심은 포폴리즘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인민의 요구와 가치를 확인하고 재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기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서영표 2014; 이승원 2018).¹⁾ 특히 투표율뿐만 아니라 당원마저 줄어들어 평범한 사람들의 공식적인 정치 참여가 활기를 잃은 시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Skocpol and Williamson 2012). 이러한 일련의 가능성은 포폴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가 '양가성(ambivalence)'을 가진다는 인식에 기초한다(Rovira Kaltwasser 2012; 김주호 2019).

이 글의 문제의식은 포폴리즘의 명암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 기존의 논의에 바탕을 둔다. 그러나 필자가 무게를 실어 논의할 요점은 민주주의에서 포폴리즘 정치와 사회운동의 관계, 특히 포폴리즘의 밝기 조절을 둘러싼 정치적 쟁투에서 사회운동의 전략을 이론적으로 모색하는 데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포폴리즘은 제도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으로 다루어졌다. 그럼에도 포폴리즘을 정치와 운동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공동의 정의를 확립하거나 논점들 간의 맥락을 좁히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 이러한 문제의식의 맥락에서 서영표(2014, 34)는 포폴리즘에 담긴 대중의 열망과 에너지가 “민중의 정치적 역량을 확장하도록 하는 대항 헤게모니적 기획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승원(2018, 25)은 포폴리즘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대응은 그것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포폴리즘을 통해 발현되는 정치적 요구들이 수용되고, 새로운 정치적 주체가 대의제 질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의민주주의를 혁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 정치와 사회운동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기존의 연구가 소홀히 취급했던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다가서지 않는다면, 포퓰리즘 정치와 사회운동 사이에서 일어나는 접합과 탈구의 원리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접근방법을 지나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글은 포퓰리즘 정치와 사회운동의 관계를 살피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집합적 도전의 전략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 전환이 촉진한 동원 양식의 변화가 포퓰리즘과 사회운동의 구조적 접맥을 형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 이어서 포퓰리즘 정치와 사회운동이 상호작용하는 접합과 탈구의 원리에서 '동원된 민주주의' 개념을 정식화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양극적인 방식으로 구조화될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포퓰리즘의 반다원주의적 요소를 제어하기 위한 인민주권운동의 전략을 제시한다.

우리는 정체성 정치로 분할되는 다양한 포퓰리즘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특히 좌파와 우파의 전통적인 이념대결 구도에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정체성의 다원주의적 분화가 포퓰리즘의 다양성에 움트고 있다. 적대에 기초한 정체성을 거부하는 순간 더 많고 다양한 '우리'를 만날 수 있다. 포퓰리즘의 다양성 시대에 유동하고 교차하는 정체성들이 공존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혐오와 차별의 부정의를 자유주의로 둔갑시키는 마술이 더는 통하지 않도록, 민주주의의 게임규칙을 보강하는 일이 시급하다.

2. 디지털 전환과 사회적 동원양식의 변화

지난 20여 년 동안 급속히 진행된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혁신은 말 그대로 ‘상상을 현실로’ 뒤바꿔 놓았다. 생활세계에서 누리는 미디어와 의사소통의 편리성에 시공간의 유연성이 더해지면서 사회적 관계와 행위의 질서에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나 정치정당이 시민사회의 요구와 불만에 응답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의 형식과 성격도 크게 달라졌다. 무엇보다 이러한 전환에 물적 토대를 제공한 거대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이나 디지털이 수식하는 자본주의를 더 이상 낫설지 않은 변화로 수용하도록 끊임없이 혁신을 광고한다.

물론 디지털 전환의 성격을 둘러싸고 1990년대 이래 예찬론자들과 회의론자들 사이에 첨예한 논쟁이 있었다(McChesney 2013, 5-16). 그러나 우리가 디지털 전환의 풍경들에 익숙해질수록 낯선 대립에서 오가는 말끝은 점차 흐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디지털 전환을 바라보는 긍정과 부정의 양극화된 시각 사이에서 민주주의를 추동하는 새로운 도전들이 서서히 접점을 넓히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동하며 –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의 불평등 심화, 소수의 거대 기업에 의한 지구적 네트워크의 독점,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화, 가짜 뉴스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언론 권력의 횡포 등과 같이 – 온갖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과 정보로 구성된 디지털 공공재(digital public goods)에 대한 접근 비용을 낮추면서 국가와 시장의 영역에 권력의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만들었다.

독재 체제보다 민주주의에서 공공재의 공급 수준과 그 기대가 높다는 것은 이미 경험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다(McGuire and Olson 1996; Lake and Baum 2001). 이런 점에서 잉글하트와 웰젤(Inglehart and Welzel 2005)이 ‘자기표현의 가치(self-expression values)’를 동력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강조했다듯이, 디지털 공공재에 대한 접근과 동원의 정치적 기회가 확장할수록 엘리트에게 권력을 위임하기보다 자기표현의 정치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어쩌면 인민주권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개인화된 비판적 시민(사회)의 도전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든다.²⁾ 그렇다고 디지털 전환이 자기표현의 정치과정에 충분조건을 저절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전환을 배경으로 한 민주주의의 동학을 새롭게 구조화하는 일은 다음의 조건과 경로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우선,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을 조건으로 한다. 디지털 전환은 의사소통 미디어의 발달을 가져와 공간과 시간 그리고 성원의 자격에 크게 구애 받지 않는, 새로운 공공성의 발현 구조로서 온라인 공론장을 창출했다(Thompson 2012). 여기에 2010년을 전후해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공론장의 정치는 더욱 개방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영역으로 변화했다. 특히 사회운동에서 저항자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공적 관심’을 ‘거리의 정치’로 전환·표출

2) 의심할 여지없이 빈약한 정보와 제한적 시민 참여는 인민주권의 사상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Gamson 2001). 그러나 반대로 디지털 전환이 가져온 범람하는 정보세계에서 소수의 인터넷 여론이 과잉 대표되고 시민 참여의 편익이 슬랙티비즘(slacktivism)의 형태로 고착되는 현실이 인민주권의 사상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다.

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는 데 익숙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에서 소셜 미디어는 정부 당국의 검열을 회피하고 전술의 즉흥적인 조정에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능을 보였다(Tufekci 2014).

실제로 튀니지와 이집트를 비롯한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민주화를 불러온 아랍의 봄, 스페인 포데모스(Podemos)의 정치적 기반이 된 ‘분노한 사람들(Indignados)’의 15M운동, 미국에서 촉발돼 전 지구적 운동으로 확산한 점령 운동(Occupy Movements), 터키의 게지 공원(Gezi Park) 시위, 이탈리아의 오성 운동(Movimento 5 Stelle)과 포르투갈의 긴축재정 반대 시위 그리고 최근 프랑스에서 촉발해 주변국으로까지 확산된 노란 조끼 운동 등 2010년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저항 행동에서 소셜 미디어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Castells 2015). 이처럼 동원과 저항 전술의 플랫폼으로 발전한 디지털 미디어는 자기표현의 가치를 공론장이나 다양한 운동의 형태로 정치과정에 내보내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표현의 정치과정은 ‘연결 행위(connective action)’라는 집합적 행위의 새로운 양식을 통해 촉진되었다. 기존의 집합적 행위가 주로 일관된 집합적 정체성이나 지도력 있는 공식 조직을 매개로 수반되었다면,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연결 행위는 이질적인 개인들의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에서 공통의 관심을 모아내 확인시키는 가운데 일체감의 경계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낮추며 서로를 연결하는, 동원과 의사소통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Bennett 2012; Bennett and Segerberg 2013). 이러한 연결 행위의 확산은 정체성과 조직, 이데올로기와 레퍼토리, 동원과 리더십의 측면에서 ‘집합적인 것(the collective)’의 관념이 담고

있던 단일하고 통합된, 동질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회운동에 관한 오랜 가정을 뒤집어 놓았다(Kavada 2016). 대신 그 자리에 탈집중화, 분산화, ‘개인화된 정치(personalized politics)’가 집합적 행위를 구성하는 모듈을 빠른 속도로 더 넓게 연결하고 있다.

물론 개인화된 정치가 정당 일체감이나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기존의 정치를 완전히 벗어난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개인의 다양한 삶의 가치와 생활양식이 공적인 것으로 재구성되는 메커니즘의 한가운데 의사소통과 동원의 새로운 결합 지점이 생성되었다는 점이다. 개인의 사적인 삶이 연결 행위를 통해 공적인 것으로 증폭되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 헤게모니에 기반을 두었던 ‘정치적인 것’의 의미도 열린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치적인 것’의 요체가 공적인 것을 정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힘이라고 보았을 때, 연결 행위는 그 힘의 질서를 새롭게 구조화했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전환을 배경으로 ‘정치적인 것’이 재구성되는 경향은 저항의 사회적 동원에서 포착된 낯선 변화를 ‘집합적 행위의 개인화(personalization of collective action)’ 및 ‘네트워크화된 사회운동(networked social movements)’으로 표현하게 만들었다(Bennett and Segerberg 2013; Castells 2015).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사회운동뿐만 아니라 포퓰리즘의 사회적 동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Moffitt 2016; Skocpol and Williamson 2012; Gerbaudo 2018). 포퓰리스트들은 TV, 라디오, 신문과 같은 전통적인 대중매체가 기득권을 가진 정치 엘리트에 의해 통제되었다고 비판하며, 낮은 비용으로 접근하기 쉽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할 수 있으며 게이트키

핑에 대한 불신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소셜 미디어 기반의 의사소통과 동원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미디어정치는 포퓰리스트들에게 기성 정치권력과 언론기관을 매개하지 않고도 그들의 인민주권을 정당화하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상향식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소통과 동원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나디아 우르비나티(Nadia Urbinati)가 마치 모순 어법과도 같은 ‘직접 대표성(direct representation)’의 개념으로 포착했듯이, ‘디지털 포퓰리즘’ 지도자들은 더 이상 정당이나 독립 매체와 같은 중간자가 필요하지 않은 인터넷 기반의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에게 직접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Urbinati 2019, ch.4). 이와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베페 그릴로(Beppe Grillo)의 블로그에 원류를 두고 성장한 이탈리아의 오성 운동과 파블로 이글레시아스(Pablo Iglesias)가 이끄는 스페인의 포데모스를 꼽을 수 있다.³⁾

사실 포퓰리즘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처럼 소셜 미디어를 소통과 동원의 강력한 도구로 삼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포퓰리즘의 최신판은 반기득권주의(antiestablishmentarianism)에 근거해 ‘정당 없는 민주주의(partyless democracy)’로서의 포스트정당(postparty)의 경향을 촉진하고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새롭다고 볼 수 있다(Mair 2002; Urbinati

3) 그릴로의 추종자들을 일컫는 이른바 ‘그릴리니(grillini)’가 의회에 입성하자, 그릴로의 전략가이자 인터넷 제작자인 장로베르토 카살레지오(Gianroberto Casaleggio)는 ‘이탈리아의 여론’ 그 자체가 마침내 의회에 들어섰다고 말했다(Müller 2016, 64에서 재인용). 한편, 포데모스의 공동 설립자인 정치학자 후안 카를로스 모네데로(Juan Carlos Monedero)는 정당의 전략이 작은 그룹들과 만나는 시간보다 TV 방송에 1분이라도 출현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진술하며 2015년 4월 당직을 사임했다.

2019). 가령, 정권을 추구하지만 정당으로 명명되는 것을 거부하는 이탈리아의 오성 운동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이는 일반화하기 어려운, 디지털 전환기에 요동치는 민주주의의 복잡한 현상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추세에 불과하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포퓰리스트들이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에 기초해 기득권 질서를 재생산하는 정당 체계와 대중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엘리트 권력을 비판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해결책으로 포퓰리즘 정당을 의회정치의 제도권 안에 공고화하는 기성 정치 공식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정치적 소통과 동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느슨한 연결을 강한 집합적 동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존하는 많은 포퓰리스트들이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토록 높은 수준의 활용도만큼 정치적 영향력의 수준이 비례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Moffitt 2019). 예를 들어, 소통보다 공표의 일상적 수단으로 자신의 트위터를 확장기처럼 사용하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다르게, 베페 그릴로나 파블로 이글레시아스와 같은 디지털 또는 온라인 포퓰리스트라고 불리는 인물들에게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은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이들 포퓰리스트와 그 지지자들에게서 소셜 미디어와 그것이 지닌 민주적 잠재력은 소통을 통한 정치적 효능감으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반면, 프랑스의 유력한 극우정치가인 국민연합의 당수 마린 르펜(Marine Le Pen)의 경우, 높은 수준의 활용도에 비례해 그의 메시지에 대중들이 반응하는 영향력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많은 포퓰리스트들은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맡

기듯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3. 포퓰리즘 정치와 사회운동

일반적으로 포퓰리즘과 사회운동은 기득권을 가진 기성 정치 엘리트 를 겨냥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대중 동원의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포퓰리즘은 ‘인민주권’을 구현할 포퓰리스트 정치인이나 정당의 존재를 핵심적인 필요조건으로 상정한다. 그래서 동원의 목적이 거의 대부분 선거 전략으로 수렴한다. 그러나 사회운동에서 선거는 단지 운동의 목적에 따른 전략적 선택의 일부로 간주될 뿐이다. 게다가 반지성주의나 반기득권주의와 같이 타락한 엘리트에 대한 반대 정서의 동원에 바탕을 둔 포퓰리즘과 다르게, 사회운동에서는 전문지식이나 권력을 가진 엘리트가 운동의 성패를 가르는 유력한 자원으로 동원되기도 한다.

또한 포퓰리즘과 사회운동은 ‘우리’ 아니면 ‘그들’이라는 집합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인 정체성을 프레임이나 정치적 수사법으로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정체성의 측면에서 포퓰리즘과 사회운동은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전자는 다원주의를 쉽게 허용하지 않는 문화적 배타성 또는 – 뮐러(Müller 2016, 38)가 예리하게 지적했듯이 – 정치에 대한 ‘도덕적 상상(moralistic imagination)’의 동질성에 기초한 전일주의(holism) 경향을 보이는 반면, 후자는 복잡하게 분화되고 상호

교차하는 집합적 정체성의 유연한 조건에서 ‘그들’을 ‘우리’로 설득하거나 방관자를 (잠재적) 지지자로 전환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볼 때, 포퓰리즘과 사회운동은 불만을 동원하는 양식과 전략의 구성적 측면에서 일정한 유사성과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같음과 다름이 교차하는 이러한 집합적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이론적 전통에 기대어 논의해 왔다(Roberts 2015; Aslanidis 2016; McCarthy 2019). 그래서 사회운동과 포퓰리즘의 역사는 상이한 궤적을 따라 전개된 것처럼 비춰지기 일쑤였다. 더욱이 포퓰리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개별 사례에 대한 역사 연구에 집중하고 비교 분석에 기초한 이론화의 시도에는 소홀했던 탓에 학문의 경계를 넘어 연구 지평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Jansen 2011). 결정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포퓰리즘은 부정적이고 사회운동은 긍정적이라는 규범적 가치가 부가되면서, 이 두 개의 집합적 현상은 모호하고 상충하기도 하지만 분리될 수는 없는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야 했다.

물론 집합적 저항의 발현 구조와 동원 과정에 관심이 많은 사회학자들의 경우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포퓰리즘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했다(Soule 1992; Diani 1996; Caiani, della Porta, and Wagemann 2012; Caiani 2013). 하지만 이들의 논의에서 포퓰리즘은 여전히 모호하게 정의되거나 운동 출현의 역사적 맥락과 운동에 착근된 특수한 성격을 수식하기 위한 서술적 개념에 그쳤다. 포퓰리즘을 대의민주주의 안에 가두는 데 성공한 정치학자들에게서도 일반적으로 비제도적 정치 행위로 분류되는 사회운동과의 관계가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포퓰리즘을 일종의 유권자 동원 전략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Ivarsflaten 2008). 포퓰리즘은 선거를 통한 영향력 행사와 집권을 목표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대의정치의 제도적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포퓰리스트와 그 추종자들은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수사 또는 급진적 정치 전략에 의해 조작적으로 정의된 ‘인민주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시민사회에 안에서 사회운동과 그에 대항하는 운동(countermovements)을 전개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포퓰리즘은 정치와 운동을 관통하면서, 사회경제적 소외감과 상실감이 빚어낸 대중의 불만을 ‘인민의 이름으로’ 동원하고 직접 대표하는 정치적 상호작용의 질서를 구조화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포퓰리즘 정치와 사회운동의 관계는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퓰리즘이 출현하게 된 거시 구조적 맥락을 살펴 보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 시스템과 그 성격이 포퓰리즘 정치와 사회운동의 상호작용에 상당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포퓰리즘은 인민의 불안과 불만을 초래한 정치경제의 구조적 위기 상황에서 출현했다. 실패한 대중운동으로 각인된 1870년대 출현한 러시아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지식인 운동 나로드니키주의(Narodnichestvo)와 더불어, 많은 역사학자들이 포퓰리즘의 원류로 지목한 1890년대 미국 인민당(People's Party)의 짧은 역사는 근대화로 접어드는 사회변동의 길목에서 가혹한 경제구조의 급진적 변화를 열망했던 농민 대중의 운동 정치를 잘 보여준다(Wortman 1967; Postel 2007). 20세기 대공황을 시작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세 차례의 포퓰리즘 물결이 요동친 라틴아메리

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며 가난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진보를 안겨주겠다고 공언한 좌파 포퓰리스트들이 보통 사람들을 달래고 주변화된 사회 부문을 광범하게 동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 위기가 주조한 극심한 불평등과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기성 정치의 타락한 엘리트에 대한 만연한 분노가 작용했다(Mudde and Rovira Kaltwasser 2013).⁴⁾ 또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과 스페인 및 그리스 등지에서 ‘분노한 사람들’의 저항, 서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포퓰리즘 정당이 활성화된 요인에도 2008년 대침체(the Great Recession)의 여파로 더욱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핵심에 있다(Kriesi and Pappas 2015; Aslanidis 2016; Bernhard and Kriesi 2019).

그러나 ‘포퓰리즘의 범람’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최근의 상황은 명백히 민주주의의 내적 위기에 기인한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란 정치가 더 이상 자본주의 고유의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개선할 수 없을뿐더러, 갈수록 개인주의적으로 다원화되는 시민의 욕구와 불만을 적절히 포용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국가 능력성의 한계와 결부되어 있다. 그런데 위기는 주관적으로 인식되고 서사와 담론을 통해 생겨나게 된다(Walby 2015). 특히 위기 담론으로 무장한 포퓰리스트들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 구축된 수많은 다중 채널을 통해 잠재적 위기를 현실화된 위기로 빠르게 증폭시키고 광범하게 퍼트린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국가

4) 무데와 로비라 칼트바서(Mudde and Rovira Kaltwasser 2013)는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이 좌파, 경제적, 포용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 반해, 유럽의 포퓰리즘은 우파, 정체성 기반, 배타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차이에 주목했다.

능력성의 문제를 무능한 기성 정치와 부패한 엘리트 탓으로 몰아세우면서 오로지 자신들만이 도덕적이고 순수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진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포퓰리스트들의 미디어 정치에 의해 과잉 조장된 측면도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신자유주의 이후 가속화된 ‘국민국가의 쇠퇴’, ‘세계 정치화(cosmopolitisation)’, ‘다문화주의’와 같은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거시 구조적 변화에 기존 정치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결과, 무너져 내린 신뢰만큼 그에 비례해 포퓰리스트들의 힘이 커졌다는 것이다(Rucht 2019). 다시 말해, 최근 세계 정치에서 목격되는 포퓰리즘의 풍경은 정치 권력이 자본주의의 시장 권력을 관리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불평등의 심화와 민주주의의 내생적 균열을 배경으로 한다. 여기에 인종, 종교, 난민, 이민, 소수자 등을 상대로 한 ‘문화적 반발(cultural backlash)’이 거세지고, 혐오의 차원에서 다원주의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들이 선거를 통해 정당체계 안에서 대표성을 가지게 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Norris and Inglehart 2019). 따라서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위기 요인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인식론은 반다원주의적인 극우 포퓰리즘에 대한 정당한 비판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평등을 관리할 능력이 결핍되고 시민의 불만과 요구를 적절히 포용하지 못한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의 출현과 확산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인과적 사실을 가리는 효과도 있다. 결국 포퓰리즘이 민주주의 위기의 요인이자 결과이면서, 동시에 타락한 엘리트와 국가권력의 무능함에 시름하다 못해 분노하는 무력한 대중들에게 민주주의가 안겨준 유용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은 기성 정당과 국가권력이 사람들의 요구와 불만을 대표하지 않거나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질 때, 다시 말해 기득권 정치에 대한 신뢰 수준이 급격히 낮아지는 순간 확산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의 출현을 사회운동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불만이 각성되고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정치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문제는 권위주의적이고 반다원주의적인 포퓰리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민주주의의 동원적 성격이 강화된다는 데 있다.

4. 동원된 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과 사회운동

민주주의는 기성 정치 정당의 대표성과 책임성 기능이 쇠락할수록 자활의 힘을 잃고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이 위기의 국면에서 이데올로기적 당파심과 충성심으로부터 멀어진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성 정당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치를 비판하며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의 감미로운 유혹에 동원될 가능성도 커진다. 그리고 마침내 포퓰리즘 정당이 대표성을 획득하게 되는 순간 기존의 정당 체제는 재정렬(realignment)의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이는 포퓰리즘 정당의 성공을 경험한 유럽의 몇몇 국가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 그 결과 기성 정당들은 한때 자신들을 지지했던 유권자

의 당파심과 충성심을 되찾기 위해 재정렬된 정당 체제에서 더욱 경쟁적인 동원 전략을 향해 변형되기 시작한다(Kriesi 2014).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포퓰리즘 정당은 소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정치 질서에 동화되는 구조적 압력을 받아들이게 된다. 다른 한편, 기성 주류 정당들은 잃어버린 표심을 되찾기 위해 포퓰리즘적 이슈에 부분적인 타협을 감행하기도 한다. 실제로 프랑스의 국민연합과 이탈리아의 북부동맹은 복지정책의 옹호자로 의제를 전환하기 시작했고, 그리스의 시리자와 스페인의 포데모스는 기존의 급진성을 탈각하고 중도 좌파의 노선으로 선회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류 정당인 덴마크의 시민당조차도 노동자계급의 이반을 일으킨 인민당의 약진을 경계하며 정권 교체를 위해 포퓰리즘적인 강경한 이민정책을 꺼내들어야 했다.⁶⁾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경쟁하는 정치조직들이 만들어진 정

-
- 5) 카이아니와 그라지아노(Caiani and Graziano 2019, 1145)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 30개국의 선거에 등장한 포퓰리즘 정당은 65개이며, 그 가운데 38%가 연립 정부에 참여하거나 소수당 정부를 지지했다.
- 6) 그럼에도 포퓰리즘 정당은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공유한다. 번하드와 크리에시(Bernhard and Kriesi 2019)는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있었던 서유럽 11개국의 선거 결과를 토대로 포퓰리즘 정당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밝혔다. 첫째, 좌파와 우파의 이념 정당이 기성 주류 정당보다 포퓰리즘의 경향을 강하게 가진다. 둘째, 우파가 문화적 이슈에 더욱 강력한 포퓰리즘적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경제적 이슈에는 좌파와 우파 모두가 포퓰리즘적 경향을 보인다. 넷째, 대침체 이후 서유럽에 영향을 미친 경제적 포퓰리즘은 남부와 북부에서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포퓰리즘 정당에 대해 가지는 기본적인 가정과 실재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위기를 배경으로 한 포퓰리즘의 다양성에 대해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책 대안들 가운데 평범한 시민이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정치체제로 정의된다(Schattschneider 1975). 이 체제의 지속 가능한 조건은 잠재된 또는 표출된 갈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갈등을 둘러싼 대안들의 경쟁을 통해 권력을 배분하는 정당 체계 고유의 갈등 관리 능력에 있다. 여기서 대안을 선택적으로 정의하는 일 자체가 최소주의적 차원에서 인민주권의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앞서 논의했듯이, 정당 체제가 불안정해지면 민주주의에서는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그 보통의 시민은 주권자가 아닌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내몰리게 된다. 더욱이 탈정치화와 반정치화로 인해 낮은 투표율과 당원 감소 문제에 직면한 정치조직들은 시민사회의 넓어진 정치적 빈 공간에서 자신들의 정치 고객이 될 시민을 모집하기 위해 포퓰리즘의 이슈를 미끼로 사용한다. 이처럼 포퓰리즘의 영향력에 취약한 시민사회와 대안 마련에 무능한 정당 체제 사이에서 국민 혹은 시민이 동원의 대상으로 전락하도록 구조화된 민주정체를 우리는 ‘동원된 민주주의(mobilized democracy)’라고 부를 수 있겠다.

주지하듯이, 민주주의는 ‘주권자로서의 인민’이 정치적 수사가 아님을 입증하는 두 가지 형태의 고전적인 정당화 논리를 가진다. 정치 선거와 사회운동이 그것이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에 대한 지배구조의 정규적인 변화를 허용하면서, 사회운동에 의한 (비)일상적 구조 변화의 압력에 반응함으로써 인민주권의 보장을 정당화한다. 그런데 동원된 민주주의에서는 포퓰리즘 정치와 사회운동이 강하게 접맥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다시 말해, 선거와 운동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결합하는 정

도가 강해진다는 의미이다. 이때 선거를 통한 합의 동원과 사회운동의 행위 동원 간의 경계는 무너지고 더욱 강력한 전일적인 ‘정치 동원의 네트워크’가 창출된다.⁷⁾

이때 정치 동원의 네트워크는 사회운동이 포퓰리즘 정치에 동원되거나 포퓰리즘 정치가 사회운동을 후견하는 방식으로 선거와 운동이 분리되지 않는 동원된 민주주의를 공고화한다. 게다가 시민사회의 다원성과 자율성을 침식하면서 비타협적이고 배타적인 정치 질서를 아래로부터 구조화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배경으로 ‘공적인 것’을 정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힘이 편향성을 가지게 되고 과잉 정치화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동원된 민주주의에서 시민사회의 쟁투적 분화는 ‘우리’와 ‘그들’로 구획된 인민 간의 대결 구도를 더욱 급진적이고 양극적인 방식으로 구조화할 위험성을 동반한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할 지점은 ‘포퓰리즘의 사회운동화’와 ‘사회운동의 포퓰리즘화’가 민주주의에서 자유주의와 다원주의의 요소를 박탈하는 폭력적인 정치 문화이다.

특히, 동원된 민주주의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세력이 일단 권력을 잡

7)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에서 동원은 인지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으로 구분된다. 사회운동 연구에서는 전자와 후자를 각각 ‘합의 동원(consensus mobilization)’과 ‘행위 동원(action mobilization)’으로 연결 짓는다(Klandermans 1984). 합의 동원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과정을 함축한다면, 행위 동원은 유무형의 자원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합의를 행위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치 세계에서는 주로 여론조사나 투표 행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합의 동원의 수준이 중요하지만, 운동 세계에서는 집회와 시위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법의 동원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레퍼토리를 전개하기 위해 실천적인 행위 동원이 더욱 강조된다.

게 되면 그들은 민주주의에서 자유주의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정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세운 정권을 공고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민주적 반자유주의(democratic illiberalism)’의 조치들을 실행했다(Pappas 2019, 71-77).⁸⁾ 첫째, 비범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의존하면서, 둘째, 끊임없이 정치적 양극화(political polarization)를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셋째, 국가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제도들을 무력화시키고 반자유주의적 헌법을 강요하며, 넷째, 지지자들에게 보상하고 야당을 밀어내기 위한 후견 정치(patronage politics)를 체계적으로 이용했다.

이러한 포퓰리즘 정치의 지배구조에서 나타나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정치적 양극화, 제도들에 대한 공격, 후견 정치의 특징은 상호 강화작용을 일으키며 민주주의에서 자유주의와 다원주의적 요소들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장기 집권의 동력을 형성한다. 결국 동원된 민주주의에서 시민 사회는 권위주의로의 전환이나 자유주의로의 귀환이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중 동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8) 파파스(Pappas 2019)는 포퓰리스트가 집권한 국가들의 역사적인 사례로 아르헨티나(1946), 그리스(1981), 페루(1990), 이탈리아(1994), 베네수엘라(1998), 에콰도르(2007), 헝가리(2010)를 비교 분석하면서 자유주의와 독재정치의 갈림길에서 포퓰리즘의 경로가 정의된다고 강조한다.

5. 인민주권의 재발견

앞서 강조했듯이, 포퓰리즘 정치는 동원된 민주주의를 구조화하는 위험성을 가진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것을 촉발한 민주주의의 위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의 실패’에 있다는 점을 외면해선 안 된다(Baiocchi 2019). 이는 포퓰리즘과 민주주의가 제로섬 관계에 놓여 있다는 그릇된 가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단지, 포퓰리즘의 구조적 발현 조건으로서 민주주의 시스템의 한계를 제기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시스템의 내벽을 침식하는 포퓰리즘의 어두운 측면이 시민사회의 다원성과 자율성의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의 내벽을 침식하는 포퓰리즘의 파괴적인 힘을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고 제어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헌정주의가 감싸 안은 인민주권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논변을 지상으로 끌어내릴 마중물이 필요하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사회운동에 주목하게 된다. 주지하듯이, 사회운동은 지난 두 세기에 걸쳐 인민주권을 주장하며 기존의 권위에 부단히 도전해 왔다(Tilly 2004, 151). 물론 역사적인 사회운동의 결과가 때로는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인민주권의 체감적 축소를 야기하기도 했다. 포퓰리즘과 마찬가지로 사회운동 역시도 대부분의 평범한 인민의 삶과 권력을 등진 채 카리스마적 운동 지도자나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만을 충족시키는 부작용을 종종 낳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사회운동의 탄생 배경과 그 발전의 궤적 자체가 인민과 주권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해석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견인해 왔다는 사실이 중요하다(Rudbeck 2012).

사회운동이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을 거듭할수록 인민주권의 이상과 현실은 그 격차를 좁혀나갔다. 인민주권의 진보적 사상을 이정표로 삼은 당대의 사회운동들은 여러 형태의 권리선언과 집합적 저항을 통해 ‘주권자로서의 인민’이라는 주체성을 아래로부터 진전시켰다. 구체제를 전복한 사회혁명, 독재 권력으로부터 인민의 권력을 되찾고자 했던 민주화운동 그리고 민주화 이후 분화된 시민사회 안에서 분출한 다양한 권리의 욕구들이 결국 사회변동의 길목마다 뿌리내린 인민주권의 사상과 실천의 궤적을 가리키는 것들이다. 농민, 노동자, 이주민, 여성, 장애인, 소수자 등 변화하는 시민의 권리와 조건에 대한 역사적 규정력이 이를 대변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운동은 장기간의 부침을 통해 인민주권의 실천과 논리가 잘 배합된, 그래서 지배 권력에 의해 이데올로기적으로 도구화된 헌정주의를 인민에게 되돌릴, 여전히 유력한 마중물의 역할을 기대하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인민주권을 주장하거나 옹호함으로써 불평등한 권력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모든 형태의 집합적 노력을 ‘인민주권운동(movement for popular sovereignty)’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그러나 인민주권운동은 최근 포퓰리즘을 탑재한 우익 정치에서 더욱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우익의 포퓰리즘 정치는 사회운동보다 훨씬 강렬하고 순수한 형태의 인민주권을 전유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표방하는 인민주권은 다수의 ‘우리’와 적대의 관계에 놓인 ‘그들’에 대항하는, 배타적이고 혼종성이 제거된 그리고 직접 대표되는 정치권력의 구현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물론 포폴리즘은 ‘다수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따른다. 그렇지만 문제는 더욱 다원적이고 경쟁적으로 변화하는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에서 다수의 지배에 경도된 나머지 정당한 절차마저 무시한 채 소수에 대해 행사하는 부당한 폭력성에 있다. 역설적으로 포폴리즘이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인민의 주권에 호소하지 않는 것이다(Urbinati 2019). 이런 점에서 우익 포폴리즘의 인민주권은 민주주의의 발전 궤적에서 사회운동의 분화로 표출된 인민주권의 다양한 언어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다원주의적인 흐름과 대척점을 이룬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의 양극단에서 인민주권을 구성하는 사회적 관계의 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민주권을 포폴리즘과 사회운동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민주권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기획이 필요해 보인다. 그것은 불평등에 대항하는 해방 프로젝트로서 인민주권을 재발견하는 일이다.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은 단지 사회주의에 대한 열망이나 계급 정치의 복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해방 프로젝트로서 인민주권운동은 다양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와 분화하는 시민적 욕구를 추구하는, 작은 정치들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집합적 도전의 전략을 의미한다.

여기서 인민주권운동의 전략을 기획할 때 두 가지 논점을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는 문제이다. 인민주권운동은 다양한 이슈와 주체를 포괄하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는 인민주권의 이상형을 구체적인 제

도와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합의이다. 특히, 엘리트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의 예방과 징벌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인민의 다양한 주체성을 정치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보편적 권리의 인정이다. 인민은 하나로 묶이는 단일한 주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체성을 관통하는 공동의 권리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민주권운동의 전략적 목표를 세우는 일에는 타락한 엘리트에 대해 인민주권의 정치적 실재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합의와 인민의 다양한 주체성을 구성하는 기본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요구된다. 전자가 포퓰리즘에 내장된 아래로부터의 반엘리트주의를 인민주권운동의 동력으로 가공하는 정치과정이라면, 후자는 포퓰리즘의 반다원주의에 대항하는 사회 통합의 다원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다.

둘째는 인민주권의 프레임을 재구성함으로써 포괄적인 주권인민(sov^{er}eign people)의 동맹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캐노번(Canovan 2005, 6)이 지적했듯이, 인민이란 개별 성원을 초월하여 살아남은 지속적인 실존과 역사를 갖는 하나의 독립체(entity)로서 집합적이고 추상적이며 위엄과 신비로 채색된 이미지를 가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별개의 삶, 이해관계, 관점을 가진 평범하고 늘 변화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의 성원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익의 포퓰리즘 정치가 전자의 도덕적 상상에 기초한 전일주의적 동일성을 순수하고 '진정한 국민'의 조건으로 선전하는 것이라면, 사회운동은 특정한 저항의 국면에서 후자의 개별화된 주체성을 '연대하는 시민'으로 결집시킨다. 포퓰리즘의 인민주

권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언어와 감정으로 표출되는 이유는 내부자와 외부자로 경계 지어진 인민의 도덕적 순수성에 있다. 여기서 인민주권과 국가주권이 동일시되기 쉬운 정치 구조가 형성되며, 그 결과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강력한 문화적 결합을 이끌어내는 우익 중심의 포퓰리즘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주권운동이 포괄적인 주권인민의 동맹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인민주권의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운동이 포퓰리즘의 견고한 인민주권 프레임을 잘게 분할 하면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의 지엽적인 해방 투쟁이 거대한 권력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효능감을 보편적인 인권의 문법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거칠게 말하자면, 여성, 소수자, 인종, 환경, 노동, 복지 등의 다양한 불평등 이슈를 인민주권운동의 프레임 안에서 각기 포퓰리즘화하면서 동시에 주권인민의 동맹을 확장하는 것이다. 포퓰리즘의 다원주의적 분화를 위한 정체성 정치의 사회적 연대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민주주의의 형식들에서 번성한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발전 궤도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인민주권운동으로 시민사회의 내벽을 다지는 정치적 기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포퓰리즘의 어두운 측면을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보정하지 않고서는, 인민주권의 다원성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참고문헌

- 김주호. 2019.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양가적 관계 이해하기.” 『시민과세계』 35. 103-136.
- 서병훈. 2008. 『포퓰리즘: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선택』. 서울: 책세상.
- 서영표. 2014. “포퓰리즘의 두 가지 해석: 대중융합주의와 민중 민주주의.” 『민족문화연구』 63. 3-42.
- 이승원. 2018. “직접민주주의의 정치철학적 기반에 관한 연구: 포퓰리즘인가 민주주의인가?” 『시민과세계』 32. 1-29.
- Arditi, Benjamin. 2007. *Politics on the Edge of Liberalism: Difference, Populism, Revolution, Agita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Aslanidis, Paris. 2016. “Populist Social Movements of the Great Recession.” *Mobilization: An International Quarterly*. 21(3). 301-321.
- Baiocchi, Gianpaolo. 2019. “The Problem is Not Populism, But the Failure of Liberal Democracy: Comments on Schmitter’s Essay.” *Sociologica*. 13(2). 3-5.
- Bennett, W. Lance. 2012. “The Personalization of Politics: Political Identity, Social Media, and Changing Patterns of Participati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44(1). 20-39.
- Bennett, W. Lance and Alexandra Segerberg. 2013. *The Logic of Connective Action: Digital Media and the Personalization of Contentious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nhard, Laurent and Hanspeter Kriesi. 2019. “Populism in Election Times: A Comparative Analysis of 11 Countries in Western Europe.” *West European Politics*. 42(6). 1188-1208.
- Caiani, Manuela. 2013. “Populism/populist Movements.” in David A. Snow, Donatella della Porta, Bert Klandermans, and Doug McAdam eds. *The Wiley-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al and Political Movements*. Blackwell Publishing Ltd.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abs/10.1002/9780470674871.wbespm370>

- Caiani, Manuela and Paolo Graziano. 2019. "Understanding Varieties of Populism in Times of Crises." *West European Politics*, 42(6), 1141-1158.
- Caiani, Manuela, Donatella della Porta, and Claudius Wagemann. 2012. *Mobilizing in the Extreme Right: Germany, Italy, and the United Stat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anovan, Margaret. 1999. "Trust the People! Populism and the Two Faces of Democracy." *Political Studies*, 47(1), 2-16.
- _____. 2005. *The People*. Cambridge: Polity Press.
- Castells, Manuel. 2015. *Networks of Outrage and Hope: Social Movements in the Internet Age* (2nd ed.). Cambridge: Polity Press.
- Crouch, Colin. 2019. "Post-Democracy and Populism." *The Political Quarterly*, 90(S1), 124-137.
- Diani, Mario. 1996. "Linking Mobilization Frames and Political Opportunities: Insights from Regional Populism in Ital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6), 1053-1069.
- Gamson, William A. 2001. "Promoting Political Engagement." in W. Lance Bennett and Robert M. Entman (eds.), *Mediated Politics: Communication in the Future of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6-74.
- Gerbaudo, Paolo. 2018. "Social Media and Populism: An Elective Affinity?" *Media, Culture & Society*, 40(5), 745-753.
- Gidron, Noam and Bart Bonikowski. 2013. "Varieties of Populism: Literature Review and Research Agenda." Working Paper, Weatherhead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Harvard University, No.13-0004.
- Inglehart, Ronald and Christian Welzel. 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New Yor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varsflaten, Elisabeth. 2008. "What Unites Right-Wing Populists in Western Europe?: Re-Examining Grievance Mobilization Models in Seven Successful Cas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1(1), 3-23.

- Jansen, Robert S. 2011. "Populist Mobilization: A New Theoretical Approach to Populism." *Sociological Theory*, 29(2), 75-96.
- Kavada, Anastasia. 2016. "Social Movements and Political Agency in the Digital Age: A Communication Approach," *Media and Communication*, 4(4), 8-12.
- Klandermans, Bert. 1984. "Mobilization and Participation: Social-Psychological Expansions of Resource Mobilization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5), 583-600.
- Kriesi, Hanspeter. 2014. "The Populist Challenge." *West European Politics*, 37(2), 361-378.
- Kriesi, Hanspeter and Takis S. Pappas eds. 2015. *European Populism in the Shadow of the Great Recession*. Colchester: ECPR Press.
- Laclau, Ernesto. 1977. *Politics and Ideology in Marxist Theory: Capitalism, Fascism, Populism*. London: Verso.
- Lake, David A. and Matthew A. Baum. 2001. "The Invisible Hand of Democracy: Political Control and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4(6), 587-621.
- Mair, Peter. 2002. "Populist Democracy vs Party Democracy." in Yves Mény and Yves Surel eds. *Democracies and the Populist Challenge*. New York: Palgrave, 91-98.
- McCarthy, John D. 2019. "Toward a Strategy for Integrating the Study of Social Movement and Populist Party Mobilisation." in Gregor Fitzl, Jürgen Mackert, and Bryan S. Turner eds. *Populism and the Crisis of Democracy: Volume 1: Concepts and Theory*. Routledge, 147-169.
- McChesney, Robert W. 2013. *Digital Disconnect: How Capitalism is Turning the Internet Against Democracy*. New York: The New Press. (『디지털 디스커넥트: 자본주의는 어떻게 인터넷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전규찬 옮김(2014). 삼천리.)
- McGuire, Martin C. and Mancur Olson, Jr. 1996. "The Economics of Autocracy and Majority Rule: The Invisible Hand and the Use of Forc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4(1), 72-96.
- Mény, Yves and Yves Surel. 2002. "The Constitutive Ambiguity of Populism." in Yves Mény and Yves Surel eds. *Democracies and the Populist Challenge*. New York: Palgrave.

- 1-21.
- Moffitt, Benjamin. 2016. *The global Rise of Populism: Performance, Political Style, and Representa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19. "Populism 2.0: Social Media and the False Allure of 'Unmediated' Representation." in Gregor Fitz, Jürgen Mackert, and Bryan S. Turner eds, *Populism and the Crisis of Democracy: Volume 2: Politics, Social Movements and Extremism*, Routledge. 30-46.
- Mouffe, Chantal. 2018. *For a Left Populism*. London: Verso.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 이승원 옮김(2019). 문학세계사.)
- Mudde, Cas and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2013. "Exclusionary vs. Inclusionary Populism: Comparing Contemporary Europe and Latin America." *Government and Opposition*, 48(2), 147-174.
- _____. 2017. *Popu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üller, Jan-Werner. 2016. *What is Populism?*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_____. 2017. "Populism and Constitutionalism." in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Paul Taggart, Paulina Ochoa Espejo, and Pierre Ostiguy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pu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590-605.
- Norris, Pippa and Ronald Inglehart. 2019. *Culture Backlash: Trump, Brexit, and Authoritarian Popul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nizza, Francisco. 2005. "Introduction: Populism and the Mirror of Democracy." in Francisco Panizza ed, *Populism and the Mirror of Democracy*. London: Verso. 1-31.
- Pappas, Takis S. 2019. "Populists in Power." *Journal of Democracy*, 30(2), 70-84.
- Postel, Charles. 2007. *The Populist Vis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Roberts, Kenneth M. 2015. "Populism, Social Movements, and Popular Subjectivity." in Donatella della Porta and Mario Diani eds, *The Oxford Handbook of Social Movemen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681-695.
- Rovira Kaltwasser, Cristóbal. 2012. "The Ambivalence of Populism: Threat and Corrective for Democracy." *Democracy*, 19(2), 184-208.

- Rucht, Dieter. 2019. "Right-Wing Populism in Context: A Historical and Systemic Perspective." in Gregor Fitz, Jürgen Mackert, and Bryan S. Turner eds. *Populism and the Crisis of Democracy: Volume 2: Politics, Social Movements and Extremism*. Routledge. 67-84.
- Rudbeck, Jens. 2012. "Popular Sovereignty and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Social Movement." *Theory and Society*. 41(6). 581-601.
- Schattschneider, Elmer Eric. 1975.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Hinsdale, IL: Dryden Press. (『절반의 인민주권』. 현재호·박수형 옮김 (2008). 후마니타스.)
- Schmitter, Philippe C. 2019. "The Vices and Virtues of "Populism"." *Sociologica*. 13(1). 75-81.
- Skocpol, Theda and Vanessa Williamson. 2012. *The Tea Party and the Remaking of Republican Conservat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oule, Sarah A. 1992. "Populism and Black Lynching in Georgia, 1890-1900." *Social Forces*. 71(2). 421-449.
- Taggart, Paul. 2002. "Populism and the Pathology of Representative Politics." in Yves Mény and Yves Surel eds. *Democracies and the Populist Challenge*. New York: Palgrave. 62-80.
- Thompson, John B. 2012. "The Media and Politics." in Edwin Amenta, Kate Nash, and Alan Scott eds. *The Wiley-Blackwell Companion to Political Sociology*. Malden, MA: Wiley-Blackwell. 173-182.
- Tilly, Charles. 2004. *Social Movements, 1768-2004*. Boulder, CO: Paradigm Publishers.
- Tufekci, Zeynep. 2014. "Social Movements and Governments in the Digital Age: Evaluating a Complex Landscap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68(1). 1-18.
- Urbinati, Nadia. 2019. *Me the People: How Populism Transforms Democrac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alby, Sylvia. 2015. *Crisis*. Cambridge: Polity Press.
- Wortman, Richard. 1967. *The Crisis of Russian Popu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opulist Politics and Social Movements

Hong, Sung-Tai

Daegu University, Postdoctoral Fellow

The academic debate on populism is still ongoing and the concept is not clearly organized. Furthermore, social mobilization based on digital networks has destabilized long-held assumptions about the nature of social movements and their capacity to influence social change. This is because digital media operate as a force that simultaneously accelerates the diversification of populism and social movements. This article discusses the strategy of collective challenges for better democracy by attempting an exploratory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ist politics and social movements in the digital age. In order to do this, I first look at how the changing mobilization pattern facilitated in the opportunity structure of digital transformation has influenced the formation of structural context between populism and social movement. It then stresses the danger that democracy will be structured in a bipolar way by formalizing the concept of “mobilized democracy” in the principle of bonding and dislocation in which populist politics and social movements interact. Based on these discussions, I propose the strategy of the movement for popular sovereignty as an emancipatory political project.

■ **Keywords:** Populism, Social Movement, Mobilized Democracy, Movement for Popular Sovereignty

투고: 2020/03/31 심사: 2020/04/21 확정: 2020/05/22